



GWANGJU
FOOTBALL CLUB

2012 No.5
GWANGJU F.C
Matchday Program

VIEW

발행처 : 광주FC 사무국,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423-2 월드컵경기장 내 2층 TEL : 062) 373-7733



열정의 광주,
삼바축구 겪고 희망 쏜다



GWANGJU
FOOTBALL CLUB

VS



대구FC

2012.05.05 15:00 광주월드컵경기장

WWW.GWANJUFC.COM TWITTER @GWANGJU_FC FACEBOOK @gwangjufc me2day /gjfc0

무시무시한 지옥의 원정 레이스를 끝낸
광주가 삼바축구를 상대로 재도약을 준비한다.

광주FC는 오는 5일 오후3시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대구FC와 현대오일뱅크 2012

K리그 11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2면에 계속

POINT
of VIEW



죽음의 4월이었다. 광주는 지난달 K리그 6경기 가운데 4경기를 원정경기로 치렀다. 늘어난 경기로 인한 체력적인 한계 속에서 인천, 전남, 성남, 전북으로 이어지는 원정은 큰 부담이었다. 여기에 박기동, 김동섭, 슈바, 박호진 등 주전 선수들의 부상공백까지 겹쳤다. 6경기 성적은 3무3패. '일으키며 상위권을 지켰던 성적은 9위로 추락했다.

그나마 위안은 3경기 연속 경기당 2득점을 기록하며 득점력을 키워가고 있고 지난 성남전과 전북전에서 세트피스로 3득점하며 장신을 이용한 위력을 과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광주는 지난해 대구와 2전 전승을 기록했다. 첫 만남은 광주의 역사적인 개막전이었고, 펠레스코어로 승리하며 광주의 이름을 축구팬들에게 각인시켰다. 두번째 만남에서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을 마치고 대구스타디움 홈구장으로 복귀한 대구를 2:1로 꺾으며 광주의 무서운 화력을 한껏 뽐냈다.

광주 최만희 감독은 "4월 원정경기를 치르면서도 대구와의 홈경기에 선수들이 최상의 조합으로 나설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했다"며 "부상선수들이 돌아오는 5월은 광주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일자	2011년도 상대전적
03 / 05	광주 3 : 2 대구 (승)
10 / 09	대구 1 : 2 광주 (승)

관전 포인트	광주 vs 대구 (광주W, 05/05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3경기 연속 2득점 최근 6경기 연속 무승 광주FC K리그 득점 3위(15골) 광주FC 홈 승률 50%, 원정 승률 50% 	

새롭게 태어난 광주와 대구

지명도 없는 국내선수. 주목받지 못하는 외국인 선수. 잘해야 강등권을 간신히 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두팀은 시민구단으로는 유일하게 한자릿 수 순위를 지키며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광주의 주무기는 올해도 패기다. 그러나 2011년 버전과는 다르다. 지난해 프로리그의 경험은 더없이 좋은 자양분이 됐다. 없는 살림이지만 선수들의 열정과 패기가 뭉쳐 엄청난 파괴력을 뽐낸다. 주전 선수들이 대거 빠진 상황에서도 초반 5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달리며 돌풍을 이끌었다. 특히 K리그 득점 3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무서운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다.

삼바축구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대구는 축구강국 브라질 출신 모아시르 감독에게 사령탑을 맡기며 변신을 시도했다. 브라질 청소년대표 출신 지넬손과 레안드리뉴 등 2명의 공격수를 영입과 함께 지난 시즌 임대 신분이었던 마테우스를 정식 이적시키며 삼각편대를 완성했다. 대구 역시 팀 분위기가 돌풍의 원동력이다. 4월 3연패를 하기도 했지만 최근 2경기에서 승을 기록하며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2012 시즌 광주FC 공격포인트

선수	골	도움
김동섭	1	
김수범		2
김은선	4	
복이	3	2
슈바	1	
이승기		4
임선영	1	
조우진(MF)	1	
주앙파울로	4	3

백화점 · 패션 스토어 E·MART

광주신세계 TOWN

1995년 4월 10일 광주법인 설립!
광주신세계는 광주기업입니다.

- 2002년 광주·전남기업 중 여덟번째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 광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모든 금융활동이 현재에서 이루어집니다.
- 지역상품 판로확대 등 일척 마케팅을 통한 상생경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신세계



‘높이와 스피드 대결’ 누구 창이 더 세나

K리그 최고의 장신군단 광주와 작지만 빠른 대구의 삼바축구가 만난다. 이번 경기의 최대 승부처는 높이와 스피드가 될 전망이다.

광주는 K리그형 스톡시티로 불린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190cm가 넘는 장신 선수들을 앞세워 ‘도깨비부대’로 활약하고 있는 스톡시티와 모습이 흡사하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는 복이(201cm)를 비롯해 유종현(196cm), 박기동(191cm), 이용, 김동섭, 슈바(이상 187cm), 임하람(186cm), 정우인(185cm) 등 주전 선수들의 평균 신장이 190cm다.

특히 기동력이 뛰어난 주앙파울로, 이승기, 김은선 등이 미드필더를 지키며 팀의 공격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셋트피스 특징이 잇따라 터지면서 큰 키를 활용한 전술에 선수들이 녹아들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대구는 작지만 빠르다. 184cm의 이진호를



원톱으로 한 4-2-3-1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사용한다. 뒤에는 지넬손(165cm)과 레안드리뉴(169cm)가 포진해 또 다른 해결사로 나선다. 빠른 볼 처리를 통한 높은 볼점유율, 스피드를 이용한

순간 역습에도 강하다. 수비도 마찬가지다. 박종진(170cm), 강용(178cm), 이지남(183cm), 유경렬(182cm) 등 높이보다는 몸싸움에 능한 선수들이 많다. 광주가 대구의 빠른 발을 묶고



광주FC 어린이날 맞아 빅 이벤트

SNS 이벤트 통해 한페이 교통카드 무료배포 웹툰 작가 김공치 선수단 캐릭터 이미지 제공

광주FC가 어린이날을 맞아 교통카드를 특별 제작했다. 광주FC는 스폰서 협약 업체인 한페이시스와 공동으로 구단 로고와 선수 이미지가 들어간 한페이 교통카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교통카드는 모두 4가지 종류로 K리그 최장신인 복이(201cm)와 유종현(196cm)이 주앙파울로를 들어 올리는 모습과 김은선, 이승기, 박호진이 뛰어다니는 모습 등을 재미있는 그림으로 표현했다.

교통카드에 들어간 선수단 캐릭터 이미지는 웹툰 작가인 김공치가 제공했다.

광주FC는 우선 400매를 제작한 뒤 이벤트를 통해 무료로 나눠주고, 추후에는 MD상품 등으로 확대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광주FC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벤트 응모는 광주FC SNS에 접속한 뒤 [광주FC 어린이날 빅 이벤트]가 씌여진 게시물에 RT하거나 댓글을 단 뒤 휴대폰으로 캡처 또는 사진을 찍어 오면 된다.

구단 트위터 아이디는 @gwangju_fc, 페이스북 페이지는 www.fb.com/gjfc2010, 미투데이는 me2day.net/gjfc00이다.

이벤트 기간은 광주FC vs 대구FC의 경기 Kick-off 시간인 5월 5일 오후 3시까지이며, 경품 수령은 경기가 끝난 뒤 광주월드컵경기장 E석 경품수령처에서 받을 수 있다. 경품은 선착순 400명에 한해 무료 배포한다.

한편 한페이(Hanpay)는 광주광역시시의 교통카드 상표로 지난해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불법복제 방지 등 보안성이 강화된 전국 호환용 KS표준카드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고속도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정상에 등극하라! 경제강국 KOREA!

온갖 악조건과 위기의 상황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용기와 집념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신화-

광주은행은 지역민과 함께 힘든 경제한파 속에서도
정상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경제강국 KOREA를 향해- 다시한번 FIGHTING!

KIP  **광주은행**

2012 여수세계박람회 공식후원은행 



산악인 김홍빈
엿새가량이 없는 장애인으로 사상 첫 남극 민승메시프 등극
장애인 사상 첫 7대륙 최고봉 완등 기록
▶산악인 김홍빈씨가 남극민승메시프 정상에 등극하여 광주은행 행기를 들고 기념 촬영한 모습

‘1000人의 기적’ 기남군 희망의 나비 날린다

“내 꿈은 곤충학자” 온정 모여 초교 2년 복학
광주FC, 사랑의 골 이벤트 모금액 연말전달

지난해 1000인의 기적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정기남(8)군이 희망의 나비를 날린다.

광주FC는 5월 5일 어린이날 홈경기 장내행사인
행운과 희망의 나비날리기에 1천명의 따뜻한 온정으로
건강을 되찾은 정기남군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생후 1개월도 안돼 선천성 담도폐쇄증으로 수술을
받은 정군은 간경화와 복수, 비장비대, 정맥류 등의
후유증으로 간 이식 수술이 시급한 상태였다.

어려운 환경에 간이식자도 없는 안타까운 사정이었지
만 광주시의 적극적인 후원과 정군이 생활하던
무등육아원이 마련한 자선콘서트 ‘1000人의 기적’
생면부지의 최명숙(52·해남)씨가 기증을 약속하면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 올초에는 초교 2학년에
복학하며 또래들과 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생 면역억제제의 도움으로 살아야 하고 매달
병원 정기검진을 받아야만 한다. 최근에는 건강이
악화돼 병원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광주FC는 정군의 꿈이 곤충학자라는 사실을 알고
많은 이들과 희망을 함께 나누기 위해 나비날리기

행사의 주인공으로 결정했다.

또 선수들이 홈경기에서 골을 넣을 때마다 10만원씩
적립 되는 사랑의 골 이벤트 모금액 중 일부를 불우
청소년들과 함께 지원해줄 방침이다.

광주FC 박병모 단장은 “기남이의 치료비 마련과 힘든
치료의 과정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나비날리기 행사의 주인공으로 선정했다”
며 “각박한 사회이지만 사랑이 사랑을 낳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 당부했다.



광주FC 공식 후원업체 GWANGJU FOOTBALL CLUB SPONSORS

